

## News

### 부동산 시장 들어가는 대부업 돈줄도 쪼인다

매일경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찾는 주택 구매자가 늘고 있어...대출 규제가 계속되면서 자금줄이 막히자 고금리를 무릅쓰고라도 대부업체를 찾아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는 대부업 대출이 DSR에 포함되지만, 시중은행에서 DSR 한도까지 대출을 받고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는 DSR 한도를 넘을 수 있어

### 금융지주계 저축은행 상반기 실적 '굉충'...알짜 자회사로 변신하나

아시아투데이

은행계 저축은행들이 올 상반기 투자자산 성장폭을 보이며 호실적...특히 신한·하나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의 순이익이 1년 전보다 30% 이상 개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받은 고객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렸기 때문...토스·카카오페이 등 유력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는 한편, 자체 플랫폼을 출시해 비대면 영업규모를 늘려

### '1200만 언택트' 카카오뱅크 홀로 호실적 달렸다

이데일리

카카오뱅크는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6.1% 증가한 268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상반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453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372.2% 증가 월 1회 이상 접속하는 이용자 수(MAU)는 1173만명으로 올해초 대비 10.5%(111만명) 증가...계좌 개설 고객 수는 2019년말 1134만명에서 1254만명으로 10.5% 증가

### 올해 차보험료 3%대 올린다더니...10% 넘는 갱신 인상을 속출

연합뉴스

각 보험사, 총보험료 인상 외에 수시로 '요율 상대조정' 작업...자체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바탕으로 손해율이 높은 집단에는 더 높은 보험료를 적용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심각하게 악화하면서 일부 보험사는 상대도조정을 강도 높게 적용, 수익성이 나쁜 집단의 보험료를 크게 올리는 전략을 택했다는 게 손해보험업계의 분석

### 금융당국, 삼성생명 DLT 면밀 점검

디지털타임스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DLF) 내부통제 미비에 이어 보험권에서도 파생결합증권(DLS) 환매 연기 사태가 발생하자 사태를 예의주시 이번 금 DLF와 DLT 검사도 은행 DLF 검사때처럼 생명보험검사국과 금융투자검사국이 공동 검사 형태를 취할 가능성

### '공매도 운명' 가를 공청회 13일 개최...찬반 토론

뉴스1

공매도 공청회가 오는 13일 열려...금융당국은 공청회 결과를 비롯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9월15일에 종료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 금융당국은 시장상황과 공매도 금지효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매도 제도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증권사 "환매중단 쟁투 조사해달라" 요청, 왜?

SBS CNBC

환매 중단된 펀드 실사와 운용사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적극적인 판매사 대응이 자금 회수까지 이어질지 주목 쟁투운용이 홍콩에 있는 데다 판매사들에게 비협조적이어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홍콩 현지 대형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준비 중

### 돌풍 없는 네이버통장...카뱅은 5일만에 100만. 네이버는 두달간 40만

이데일리

금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통장 가입자 수는 8월초 기준 35만~40만명으로 추정...출범 첫달 27만 가입자를 모았지만, 7월에는 절반 수준인 13만명의 가입자를 모은 데 그쳐 관계자,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생각하는 맥락을 잘 따라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네이버통장의 한계가 드러난 것...네이버쇼핑을 위한 도구로 인식했을 뿐..."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